

전은, 회복지역아동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선물

전북은행이 전주시 회복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따뜻하 고 쾌적한 공부방을 선물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9일 회복지역아동센터에서 'JB회 망의 공부방 제206호' 오픈식을 열고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회복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과 교육ㆍ정서 지원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해 온 건물이 낡아 벽지 와 바닥, 주방 등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은행은 새 도배와 함께 난방이 되지 않았던 바 닥에 데코타일과 매트를 시공해 아이들이 겨울에도 따뜻하 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식과 식사를 위생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싱크대를 교체, 수납장과 블라인드 등을 지원해 정돈되고 밝은 환경을 마련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에듀페이 장학생 선정

남원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지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북에듀페이 지원 협력 기부사업의 장학생으로 이지연 청소년이 선정돼 장학금 2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지연 청소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 우수한 성적 으로 합격했으며,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었다.

이지연 청소년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소 /남원=김기두 기자 감을 전했다.



남원 행복의료기, 죽항동에 보행보조기 2대 기탁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는 9일, 관내 의 료기기 업체인 행복의료기(대표 우경진)에서 지역내 어르 신들을 위해 보행보조기 2대(8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이번 기탁은 '1일 1가구 소통 행정'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여 이뤄낸 성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과 일상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의료기는 금년 6월 새롭게 문을 연 청년 창업 업체로 노인복지와 주민 건강 증진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남원=김기두기자



서성환 신원케미칼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

신원케미칼 서성환 대표가 9일 무주군에 고향시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서성환 대표는 "무주군과 맺은 인연이 고향사랑기부로 열 매를 맺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무주 발전을 바라 고 군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기부금이 요긴하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원케미칼은 19년째 운영되고 있는 산업체 폐수처리 약 품 취급 회사로, 무주군을 포함해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 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 /무주=전문선 기자 고 있다.





대한민국 국제 위상 한 단계 더 높여

'미래를 밝히다' · · 전북 JG 그룹 이재구 회장, 파푸아뉴기니에 희망의 씨앗 심어

이름 없는 열정으로 조용히 세계를 감동시키고, 대한 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한 인물이 있다.

전북의 민간 기업인 JG 그룹을 이끄는 이재구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저 먼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PNG)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제시하며, 기업의 이윤을 넘어선 인류애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어 재계와 국제사회의 주 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이재구 회장은 파푸이뉴기니(PNG) 모 레베 주 정부의 루터 윈계 주지사와 감동적인 양해각 서(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미소 코렌 PNG.농업부장관 겸 총리 수석 비서관과 협약 후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협약의 핵심은 파푸아뉴기니(PNG)의 제2의 도시 이자 핵심 산업 중심지인 레이시에 태양광 패널 시스 템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것이다.

빈번한 정전과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어 온 레이시에, JG 그룹은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라는 희망의 빛을 선사하게 된다.

이재구 회장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재생에너 지 활용을 통한 환경 지속가능성 촉진, 태양광 기술 이 전, 현지 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약 속하며 PNG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선 국가적 기여 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의 혁신 기술력이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빛나는 순간이다.

이 회장의 감동적인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지구커피'라는 브랜드를 통해 PNG 산 질 좋은 유기농 커피 원두를 공정무역 형태로 수입, 국내에 프

무진장축협 조합장을 비롯해 우덕희 문화원장, 임경빈 여

성일자리센터 운영위원장, 우태만 애향본부장, 회원 등 400

행사에 앞서 진안군 여성 색소폰 앙상블팀과 줌바 여성시

대팀의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식, 유공자표창, 진안군여성

단체협의회 활동 영상 시청 및 양성평등 기원 퍼포먼스, 화

특히 여성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등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Δ 진안읍 홍화영, 안병임 Δ 용담

면 이숙경 \triangle 안천면 고도영 \triangle 동향면 안복순 \triangle 상전면 홍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김제'라는

슬로건 이래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어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

에 기여한 유공자 19명의 표창 수여와 시민의 소망과 마음

을 담은 종이비행기 퍼포먼스로 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를 함께 나눴다. 2부에서는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여

실현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진안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개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랜차이즈 형태로 보급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전주시 기린대로 163번지에 문을 연 지구커피 1호점은 입소문을 타고 밀려드는 손님들로 성업 중이고 벌써 2호점이 금압동에, 3호점은 시청 옆 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4호점을 평화동에 준비 중이고, 5-6-7호점은 서울 혜화동 대학로 옆과 강서구 마곡동 등에 개점 준 비 중이다.

맛과 향으로 입소문이 나 전국적으로 지점 개설 문의 가 쇄도하는 이 커피전문점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선다.

지구커피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액은 파푸이뉴기니 (PNG)의 농업 발전과 학교 설립, 문맹자 교육 등 지역 사회 환원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저 멀리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따뜻한 메 시지를 전달하며, 소비자들에게도 착한 소비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이재구 회장은 "우리의 기술과 노력이 파푸아뉴기니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도움 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이윤이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계속 증명해 보이 고 싶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지립을 돕는 대한민국 기업의 품격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윤리적 경영과 국제적 상생의 모 범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행보가 지속적인 영감을 주어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동참하기를 /이만호 기자 크게 기대한다.



이숙자 남원시의원,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수상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 린 '2025 제11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 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인물을 발굴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신문, 월간 선데이가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이다.

주최 측은 "이숙자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을 바탕 으로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 민원을 해 결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초선임에도 제9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경제농정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으며, 대표 발의 15건, 공동발의 8건 등 시민의 삶에 다가가는 실 질적인 입법 활동을 주도했으며, 1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 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눈에 띄는 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며 고민해 온 활동 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 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농협, 고향사랑기부 따뜻한 마음 전해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부안군을 찾아 9일 지역사회 따뜻한 마음을 위한 고향사랑기부를 600만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식에 나선 부안농협은 지난 2023년 무주군에 550만원을 올해는 부안군에 600만원을 기부함으로서 해마 다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

부안농협은 임직원수 110명, 조합원수 5,500여명으로 본점 을 비롯한 3개의 지점과 하나로마트, 미곡종합처리장, 영농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을 운영하며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 육지원사업 등에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봄 경북 산불피해복구지원과 순창구립농협투표 사고 위로금전달, AI비상방역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가 어려 움에 처할 때마다 도움에 나서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농협은 부안경제에 중요한 위치 에 있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함에 더해 해마다 기부에 동 참해줘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김원철 부안농협조합장은 "지역이 살아야 우리 농협도 동 반성장할 수 있어 작은 성의이지만 지역주민의 삶에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김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을 수여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 는 9일 시청 대강당에 서 김제시여성단체협 의회(회장 임영순)주 관으로 '2025년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여성단체협

의회(회장 박미희)는

9일 오전 11시 2025

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진안문예체

육회관에서 기념행사

이날 행사에는 전

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장, 전용태 도의

원, 변성섭 농협 진

안군지부장, 송제근

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를 개최했다.



성리더의 역할'을 주 제로 우성빈 강사의 특강과 '이희정 밴드 의 퓨전국악 공연'으 로 참석자들에게 의 미 있는 배움과 즐거 움을 선사했다.

조성을 위해 노력하

/진안=우태만 기자

△부귀면 최성숙 △

정천면 김봉임 △주

천면 문복순 총 12

명의 유공자에게 표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

현에 기여한 한국생

활개선 진안군연합

회와 단체 회원 9명

에게 진안군여성단

체협의회장 표창장

창했다.

임영순 여성단체협

의회 회장은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김제를 만들어 가는 중심에 여성단체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희 진안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여성들

의 권익증진과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및 취업 알선,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양성

평등 구현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보

전춘성 군수는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오신 박미희 진안군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을 비

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

편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두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 며, 존중과 배려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 는 도시, 김제시를 만들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양성평 등의 의미가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 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무주군에 분유 기탁

무주군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가 기탁한 기능성 분유 760통(3천만 원 상당)을 9일부터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유는 무주군가족센터를 통해 영・유아 아동 가정과 임 산부들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기부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서는 기업 녹십자의 후원을 받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한국산후조리 원연합회 이석범 대표와 전옥 이사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

이들은 "아기를 키우는 가정의 분윳값 부담도 덜고 아기 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싶었다"라며 "무주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산장려금 지원, 무주형 아이 돌봄, 공동육아 나눔 터 운영, 이동 양육 지원 등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무주군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양육 환경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 /무주=전문선 기자 력할 방침이다.